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이중매개효과[†]

황 지 연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 규 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전위 공격성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분노 억제, 분노 표출)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참가자 327명(남자 128명, 여자 198명)의 설문지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 검증한 결과,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토대로 결과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했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분노 억제와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 표출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을 이중으로 매개하여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위 공격성이 높은 개인에게 문제시되는 정서와 정서 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치료 접근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분노 억제, 분노 표출, 전위 공격성

[†] 이 논문은 황지연(2014)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연규진, (0410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Tel: 02-705-8327, E-mail: kjiyon@sogang.ac.kr

사회가 날이 갈수록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특히 가해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분노 및 공격성을 표출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여 일반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와 달리 ‘묻지마 범죄’에서는 분노의 원인과 무관한 사람을 향해 공격성이 표출되는데, 관련 기사들이 신문의 사회면을 연이어 채워가고 있을 만큼, ‘묻지마 범죄’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 중 하나이다. 이처럼 공격성을 유발한 특정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을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이라고 말한다(Miller, 1948). 전위 공격성은 가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범죄를 야기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서민재, 박기환, 2013).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전위 공격성을 유발하는 상황적인 조건이나 전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에 초점을 둔 실험연구가 대부분이며(Epstein, 1965; Frodi, Macaulay, & Thome, 1977; Kaufmann & Feshbach, 1963; Miller, 1948),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심리 내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들(서민재, 박기환, 2013; 이하나, 2009; 조은영, 2011; 황선주, 박기환, 2014)은 최근에서야 진행되고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위 공격성과 관련된 심리 내적인 특성들은 정신건강의 다양한 부적응적인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을 야기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치심과 분노에 관심을 갖고자 하였다. Tangney, Niedenthal, Covert와 Barlow(1998)에 의하면, 수치심은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나지 않도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전위된 공격성을 많이 보이게 만든다고 한다. 또한 Berkowitz(1990)는 분노와 전위 공격성의 관련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안하면서 분노감정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는 원인 제공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계현(1993)은 분노 감정이 적절하게 방출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서수균과 권석만(2002a)은 자존감이 낮은 개인들이 대인관계에서 분노감을 많이 경험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경직된 억제 경향을 보여 오히려 분노 감정이 과격하고 부적절하게 표현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하나(2009)는 전위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노표현양식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이 높은 개인에게 적절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해주기 위해서 개인 내적 특성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여 전위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를 매개하는 분노표현양식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기 전위 공격성 연구에서 전위 공격성이란 누군가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유발한 자극과는 상관없이 무고한 대상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Dollard, Doob, Miller, Mowrer, & Sears, 1939; Howland & Sears, 1940). 그리고 Averill(1983)은 실험 연구를 통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대상보다는 자신과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대상에게 전위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

다. 이후 전위 공격성이 일차적인 분노유발 사건에 이어서 분노를 유발하는 촉발자극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표출되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발된 공격성을 일차적인 분노유발 대상에게 표출하지 못하고 촉발자극을 제공한 이차적인 대상에게 표출하는 ‘촉발된 전위 공격성’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이하나, 2009; 황선주, 박기환, 2014; Miller, Pedersen, Earleywine, & Pollock, 2003; Pedersen, Gonzales, & Miller, 2000). Denson, Pedersen과 Miller(2006)는 전위 공격성에 대해 인지, 정서, 행동적인 측면에 따른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위 공격성 질문지(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를 개발하였고, 이후 연구자들(서민재, 박기환, 2013; 이하나, 2009; 황선주, 박기환, 2014; Denson, Pedersen, Ronquillo, & Miller, 2008; Liu et al., 2015)은 이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지 영역인 보복 계획은 선형 자극에 보복을 위한 계획을 통해 원한을 유지하려는 경향, 정서 영역인 분노 반추는 분노를 유발한 자극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하는 경향, 그리고 행동 영역인 전위 공격적인 행동 경향은 초기 분노 유발 자극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을 의미한다(Denson et al., 2006).

수치심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이자 평가적인 반응’으로(Yontef, 1993/2008), 타인으로부터 실제 또는 가상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경험하는 불쾌한 정서라고 정의된다(Ausubel, 1955). 그 중에도 내면화된 수치심이란 특질 수치심으로, 인간 내면에 배어있는 보

다 내면화된 태도로써의 수치심을 말한다(Claesson & Sohlberg, 2002). 이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 경험의 중심을 이루는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수치심의 병리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인숙, 최해립, 2005).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어린 시절에 양육자와의 경험으로부터 생겨나 생애 전반에 걸쳐 자리 잡는 개인의 내면화된 특성으로(Cook, 1988), 쓸모없음, 결함, 타인과의 관계에 노출되는 것, 무기력함 등과 관련된 초기 대상 경험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정서로 이해할 수 있다(Nathanson, 1987).

수치심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치심의 특성은 전위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치심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격노,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동반되는 근본적인 감각으로, 격노 감정과 함께 작용하면서 분노 감정과 상황을 회피하게 만든다(Kaufman, 1974). 그리고 공격성을 촉발하는 자극을 벗어나 회피하려는 경향은 두려움, 전위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Berkowitz, 1990; Denson et al., 2006). 경험적 연구에서 전위 공격성은 행동 억제적 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회피를 대처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nson et al., 2006). 즉,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나지 않도록 공격성이 유발되는 상황을 벗어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회피적인 대처방식은 우선적으로 행동을 억제하게 만들어 분노가 유발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다른 기회를 통해 불평, 불만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게 하여 전위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다(Lewis, 1995; Tangney, Miller,

Flicker, & Barlow, 1996). 그리고 Tangney, Wagner, Hill-Barlow, Marschall과 Gramzow (1996)는 수치심이 높은 성인의 경우 특히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어린 연령보다 높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면서 직접적인 공격성보다는 간접적인 공격성이나 전위 공격성을 더욱 많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된 분노표현양식은 분노 경험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Berkowitz(1990)는 분노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절하고 표현하는가가 실질적으로 적응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분노를 느끼는 수준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분노를 느끼더라도 이에 대해 대처하는 양식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분노를 경험하는 것과 분노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Forgays, Forgays, & Spielberger, 1997). Spielberger(1988)는 분노감과 분노표현양식을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여, 이를 구분지어 측정할 수 있는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개발했다(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1998;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이들에 의하면 분노표현양식은 분노 경험에 대해 대처하는 여러 방식들로, 분노 억제(anger-in), 분노 표출(anger-out)과 분노 통제(anger control)의 세 가지 양식으로 구분된다.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은 분노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양식으로써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분노 억제는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이

를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이은주, 2007). 즉, 분노를 내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말하며(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Averill, 1983), 분노가 유발된 상황과 관련된 사고, 기억 또는 분노 자체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김미란, 2001; 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분노 표출은 분노를 타인이나 대상에게 나타내거나 신체적 행위, 비난,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분노를 유발시킨 대상자에게 분노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표출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자신의 분노경험을 외현화하여 드러내는 경우는 모두 분노 표출에 해당된다(이은주, 2007). 이는 단순히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해숙과 정남운(2011)은 완벽주의와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인 분노 표출, 분노 억제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했다. 김현주와 이정운(2011)은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표출, 분노 억제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도 역시 뒷받침되었다(표현, 2012). 즉, 자기에 대해 손상된 지각을 가지고 있거나 부적절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경우, 분노 표출

이나 분노 억제와 같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현주, 이정운, 2011).

특히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우선적으로 분노를 억제하고, 이렇게 억눌린 분노가 한계에 도달하면 결과적으로 더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게 될 수 있다. 김미림과 홍혜영(2013)은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면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인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 간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이 높은 경우 분노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높고, 억제된 분노는 부적절하고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을 높게 하는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 그리고 학교적응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는 분노 억제가 분노 표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였을 때 분노 억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수치심이 분노 표출을 통해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의 방향이 바뀌는 억제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김미림과 홍혜영(2013)은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 억제가 증가하여 부적절한 방식으로 충동적인 분노 표출을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학교부적응을 초래하는 등의 부정적인 적응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수치심이 높은 개인의 경우 분노 표출로 가는 경로에 있어 분노 억제가 부적절한 분노 표출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그리고 Megargee(1973)는 극단적으로 분노를 억제하는 성향을 보이는 과잉통제형 성격의 사람들의 경우, 억제된 분노가 한도를 넘어서면서 극단적인 폭력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상균(2016) 역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억제하며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이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적절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억압된 감정을 순간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나타내지만 우선적으로 분노 억제를 많이 하여 이를 매개로 분노 표출을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심과 분노 억제, 분노 표출 간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의 부분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완전매개효과의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에서 분노 억제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쟁모형에서 이를 추가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과 전위 공격성은 분노를 반추하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분노 억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적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분노 억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분노 반추 양식이 나타날 수 있다(김교현, 전경구, 1997). 이러한 분노 반추 경향은 전위 공격성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다(Denson et al., 2006). 선행연구들은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이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공격성을 억제한 후, 당시의 분노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반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Bushman, Bonacci, Pedersen, Vasquez, & Miller, 2005; Marcus-Newhall, Pedersen, Carlson, & Miller, 2000). 또한 Miller 등(2003)은 실험 연구를 통해 처음 공격성이 유발된 사건이 있을 후

로 사소한 촉발 자극이 있을 때까지 각성반응이 이어지고, 그 사이 반추가 일어나는 경우에 촉발된 전위 공격성이 발현되기 쉽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분노 억제와 같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은 반추적 반응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여 분노에 대해 집중하게 만들고, 분노가 유지 혹은 증가되게 하여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갑작스럽게 공격성을 표출하거나 또는 무관한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하며(Bushman et al, 2005; Nolen-Hoeksema, 1991), 이는 결과적으로 전위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타인으로부터의 거부를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어, 자신에게 유발된 분노를 적응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억제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출하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을 사용하며 더 심각한 수준의 전위된 분노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Lewis, 1971). 또한 억제된 분노가 누적되어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따르면(김계현, 1993; 서수균, 권석만, 2002b), 분노 억제가 분노 표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하나(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전위 공격성만 높은 집단이 직접 공격성만 높은 집단보다 분노 억제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전위 공격성과 직접 공격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직접 공격성이나 전위 공격성 중 하나만 높거나 또는 둘 다 낮은 집단보다 분노 표출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 따르면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은 전위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높은 수치심은 회피 기제를 통해 유발되는 격노와 분노를 억누르고 후에 부적절한 대상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노와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는 전위 공격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Kaufman, 1974).

종합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양상을 많이 보일 수 있으며, 높은 전위 공격성을 보일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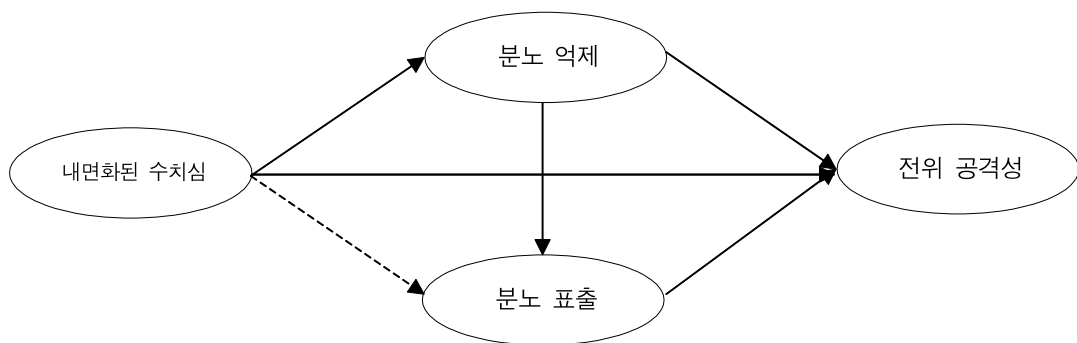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¹⁾

1) 연구모형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에서 분노 억제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이중매개효과를, 경쟁모형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의 사이에서 분노 억제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두 모형의 차이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분노 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를 부분 및 완전매개하는 모형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모형을 제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성인 남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 4년제 사립대학교의 학부생 및 졸업생(수료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및 연구 안내문을 통해 연구를 소개한 후, 자발적인 설문 참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된 406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9부를 제외한 총 327부의 설문지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가 128명(39.1%), 여자가 198명(60.6%), 무응답 1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1.5배 정도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부터 37세까지였으며, 20세 이하 74명, 21~25세 184명, 26~30세 49명, 31~35세 14명, 36세 이상 5명, 무응답 1명으로 21~25세 응답자가 제일 많았고, 연구대상자 전체 평균연령은 23.72세였다. 학력은 대학 재학이 226명(6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재학이

58명(17.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그 외의 응답자는 대학 졸업생과 대학원 졸업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측정도구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1989)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졌을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의 6문항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그런 경우가 없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형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88)가 개발하고, 전경구 등(1997)이 번안, 타당화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를 사용하였다. 본래 STAXI-K는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상인 분노 억

제, 분노 표출, 분노 통제, 세 가지 하위요인을 비롯하여, 상대 분노, 특성 분노를 측정하는 두 가지 하위요인이 추가된 질문지로 총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다섯 가지 요인 중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2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분노표현양식 척도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형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분노표현양식의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알아보는 분노 억제 요인(8문항)과 분노 표출 요인(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전경구 등(1997)의 연구에서 분노 억제 요인과 분노 표출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78,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4, .79로 나타났다.

한국판 전위 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DAQ-K). 전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Denson 등(2006)이 개발하고, 이하나(2009)가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전위 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DAQ-K)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분노반추(10문항), 보복계획(9문항), 전위 공격 행동(8문항)의 총 27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위 공격성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Likert형 7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전위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노반추 요인은 '나는 나를 화나게 했던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각한다.', 보복계획 요인은 '나는 마땅히 앙갚음해야 할 누

군가에게 보복할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속이 많이 상한다.', 전위 공격 행동은 '나는 화가 나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나(2009)의 연구에서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9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19.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로 세운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인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중매개모형을 설정하였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연구모형과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검증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χ^2 , TLI(NNFI), CFI, RMSEA를 살펴보았다. TLI(NNFI)와 CFI는 .90 이상이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RMSEA는 .10 이하면 보통, .08 이하면 양호, .05 이하면 우수한 모형이라고 해석한다(홍세희, 2000). 더불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χ^2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모형의 비교 시에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보다 간명한 모형이 더 낫다고 해석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결 과

기술통계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2와 4를 넘지 않은 것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주환 외, 2009). 모든 변인들의 신뢰도는 .74에서 .94로 나타났다. 표 1을 살펴보면, 수치심, 분노 억제, 분노 표출과 전위 공격성은 각각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치심과 분노 억제는 .39($p < .01$)의 정적 상관을 가지며, 수치심과 분노 표

출은 .19($p < .01$)의 정적 상관,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은 .50($p < .01$)의 정적 상관을 갖는다.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은 서로 .21($p < .01$)의 정적 상관을 가지며, 분노 억제와 전위 공격성은 .46($p < .01$)의 정적 상관을 갖는다. 분노 표출과 전위 공격성은 .33($p < .01$)의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는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억제, 분노 표출, 전위 공격성과 같은 총 4개의 잠재변인들이 사용되었다. 모형에 사용된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

표 1.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1. 내면화된 수치심	1			
2. 분노 억제	.39**	1		
3. 분노 표출	.19**	.21**	1	
4. 전위 공격성	.50**	.46**	.33**	1
평균(표준편차)	43.98 (10.05)	17.99 (4.33)	15.07 (3.93)	77.90 (25.44)
척도평균	1.83	2.25	1.88	2.89
왜 도	0.62	0.24	0.55	0.27
첨 도	-0.13	-0.35	0.08	-0.66

** $p < .01$.

표 2.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구 분	추정된 상관계수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억제	.536***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표출	.229***
전위 공격성 ↔ 내면화된 수치심	.640***
분노 억제 ↔ 분노 표출	.258***
전위 공격성 ↔ 분노 억제	.610***
전위 공격성 ↔ 분노 표출	.387***

** $p < .01$. *** $p < .001$.

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측정변인은 각 변인의 하위요인들로 이루어졌으며,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은 단일 요인이므로 3개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측정변인들로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측정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chi^2(59, N=327)=127.271, p<.001; TLI=.942; CFI=.956; RMSEA=.060$.

구조모형 검증

각 변인들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모형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에서 분노 억제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전위 공격성을 예측할 것을 가정한 이중매개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쟁모형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

출 사이에서 분노 억제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고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이중매개모형을 설정한 후,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chi^2(59, N=327)=127.271, p<.001; TLI=.942; CFI=.956; RMSEA=.060$, 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모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표출’ 경로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beta=.127, t=1.494, p=.135$.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역시, $\chi^2(60, N=327)=129.498, p<.001; TLI=.942; CFI=.955; RMSEA=.060$, 으로 양호했다. 각 모형의 표준화된 추정치에 1을 넘는 값이 있는지와 오차분산이 음수인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김주환 외, 2009),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

경쟁모형은 연구모형에 내포되어 있는(nested) 관계이므로, χ^2 검증을 통해 두 모형을 비교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경쟁모형과 연구모형의 χ^2 차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p	TL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연구모형)	127.271	59	.000	.942	.956	.060
완전매개모형 (경쟁모형)	129.498	60	.000	.942	.955	.060

표 4. 최종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예언변인 → 준거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억제	0.361	.052	.543	6.883***
분노 억제 → 분노 표출	0.202	.053	.273	3.809***
분노 억제 → 전위 공격성	2.644	.631	.335	4.191***
분노 표출 → 전위 공격성	2.234	.639	.209	3.499***
내면화된 수치심 → 전위 공격성	2.182	.402	.416	5.43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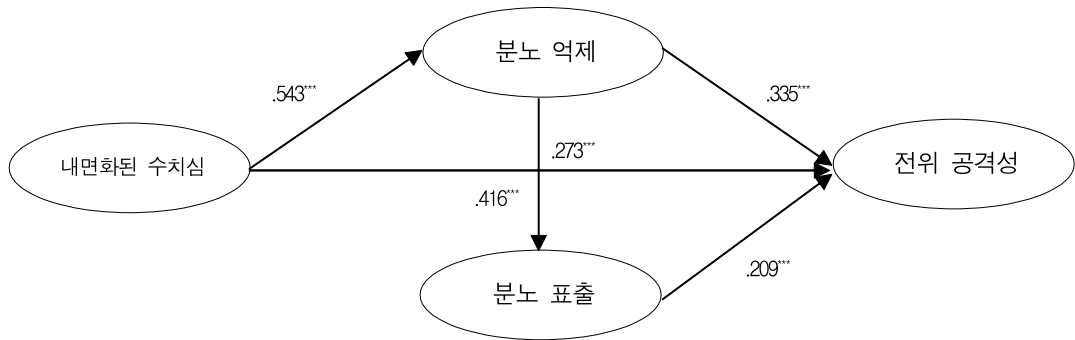


그림 2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및 전위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최종모형

이 값은 2.227로 자유도 차이 1에 대한 χ^2 차이의 임계값인 3.84를 넘지 못하여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보다 간명한 모형이 우수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경쟁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표출’ 경로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에서 분노 억제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χ^2 비교 검증, 적합도 비교, 모형의 간명성과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으로 인해 오히려 분노 감정을 부적절하게 표출할 소지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계현, 1993; 서수균, 권석만, 2002b)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인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데 있어 완전매개를 가정한 경쟁모형을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하고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최종모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로 가는 경로는 .543($p < .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분노 억제가 분노 표출로 가는 경로도 .273($p < .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분노 억제가 전위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335($p < .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분노 표출이 전위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209($p < .001$)로 유의했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도 .416($p < .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및 전위 공격성의 구조적인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매개로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효과크기를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나누어 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에서 각각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Sobel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Sobel, 1982).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 Sobel 검증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매개 경로는 총 3개이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를 매개로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경로 1,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를 매개로 분노 표출을 설명하는 경로 2와 분노 억제가 분노 표출을 매개로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경로 3이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각 경로의

비표준화 경로계수와 표준오차를 공식에 대입시켜 Sobel Z 값과 p 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Sobel의 Z 검증 결과, 모든 경로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Z=3.59$, $p<.001$.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Z=3.34$, $p<.001$. 분노 억제와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 표출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Z=2.58$, $p<.01$.

Sobel의 Z 검증은 매개변인이 2개 이상인 이중매개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증을 시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을 차례로 거쳐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간접효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Taylor, MacKinnon과 Tein(2008)의 Exact standard error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중매개효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을 거쳐 전위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이다.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을 이중매개하여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변인들 간의 총 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표준화계수)

예언변인	준거변인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억제	.543	.543	.000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표출	.148	.000	.148
분노 억제		.273	.273	.000
내면화된 수치심	전위 공격성	.629	.416	.213
분노 억제		.392	.335	.057
분노 표출		.209	.209	.000

표 6. 최종모형의 Sobel Z 검증 결과

	독립변인 → 매개변인 → 종속변인	Z	p
1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억제 → 전위 공격성	3.59	***
2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억제 → 분노 표출	3.34	***
3	분노 억제 → 분노 표출 → 전위 공격성	2.58	**

** $p<.01$, *** $p<.001$.

표 7. 최종모형의 Exact standard error 검증 결과

효과(Effect)	표준오차	Test 95% CI	결과
0.163	0.005	[0.027, 0.030]	유의미함

주. CI = confidence interval.

논 의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성인 남녀 327명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인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이 각각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이중매개모형을 설정하였고, 경쟁모형으로는 분노 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이중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와 χ^2 검증 분석 및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인 분노 억제를 통해 분노 표출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은 다시 전위 공격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김미림, 홍혜영, 2013; 김현주, 이정운, 2011; 정해숙, 정남운, 2011; 표현, 2012).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수치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분노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어려워한다는 Lewis(1995)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는데,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 억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노 억제가 부

적절한 분노표현방식인 분노 표출을 설명하여 전위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자 개인에 대한 정서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이인숙, 최해립, 2005)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을 사용하게 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전위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와 같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전위 공격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의 관계에 있어 분노 억제의 매개효과에 대한 구체적 탐색을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하고 분노 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미림과 홍혜영(2013)은 중학생의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에서 분노 억제의 매개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들 간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수치심이 높은 개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고, 억제된 분노를 역기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수치심이 높은 경우 분노 억제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김현주, 이정운, 2011; 정해숙, 정남운, 2011; 최임정, 심혜숙, 2010; 표현, 2012),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 표출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 또한 지지하였다(김현주, 이정운, 2011; 정해숙, 정남운, 2011; 표현, 2012).

본 연구에서 분노 억제의 매개효과에 있어 완전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수치심이 높은 개인의 경우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어려워하며, 분노 억제가 분노 표출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치심이 높은 개인들은 분노를 억제한 이후 억제된 분노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에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분노를 억제한 후 분노 및 공격성을 유발하는 상황을 벗어난 개인들은 이후 전위 대상에게 공격성을 부적절하게 표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수치심이 높은 개인들이 특히 타인의 시선에 더 민감한 만큼 자신이 보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대상에게 전위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다(Lewis, 1995).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에서 확인된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과 전위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과의 관계로 확장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전위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적인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감정억제를 많이 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Kim,

Atkinson과 Yang(1999)의 아시아 가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집단주의와 더불어 감정통제가 강조된다고 하며, 조궁호, 김지연, 최경순(2009)의 연구에서도 집단주의 사회에서 자기억제가 중시되며 이에 따라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했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서 전위 공격성이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박경화(1991)의 한국인의 자아방어기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위 공격성의 주된 심리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전치, 회피와 같은 방어기제의 사용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박영숙(1993)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응적인 방어기제를 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참가하고 있어, 전위 공격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과 전위 공격성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대상들에게서는 변인들 간의 더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에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전위 공격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치심과 같은 심리 내적인 특성에 대해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 서민재와 박기환(2013)이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지만,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전위 공격성이 높아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위 공격성이 높은 개인에게 치료적 개입을 할 때, 어린 시절 경험으로부터 생겨나 만성화된 수치심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이를 억제 후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위 공격성을 보인다. 따라서 전위 공격성의 유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수치심으로 인해 억압되어 있는 분노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치료적 개입을 해줌으로써 분노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노를 조절하기 위하여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오류를 찾아 수정하도록 돕고, 인지·행동·신체·정서적인 요인을 스스로 돌아보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인지이완훈련이나 감정표현기법 등의 치료적 개입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박혜성, 홍창희, 2008; 최효선, 2003). 선행연구 결과, 이러한 일련의 치료적 개입은 분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개인의 자존감을 높일 뿐 아니라(이철호, 이민규, 2007; 천성문, 이영순, 이현림, 2000), 수치심을 낮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입방법은 궁극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부적절하게 높은 수치심을 낮추고, 더불

어 전위 공격성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학력이 높은 초기 성인기에 국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이러한 표집의 특성은 연구 결과에서 얻은 수치심의 점수가 기존 연구들의 점수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내면화된 수치심 점수는 최소 24점에서 최대 120점까지의 분포를 가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표본들의 평균 점수는 47.6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내면화된 수치심 연구(최임정, 심혜숙, 2010; 황지선, 2013)의 평균 점수에 비해 적게는 10점에서 많게는 25점 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학력, 증상의 심각도 등의 특성을 다양화하여 수치심을 비롯한 연구 변인의 분포가 다양한 표집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와 비교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모든 자료는 설문을 작성하는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자료로, 이는 시간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전위 공격성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변인들 간의 종단적 연구 또는 실험 연구 등을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응답자들의 방어 성향과 사회적 바람직성

의 추구 경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표현양식, 전위 공격성과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연구 과정 중 설문지에 자존감과 같은 긍정적인 영역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으나,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 수에 비해서 적은 문항 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특히 전위 공격성의 경우, 자신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촉발된 전위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전위 공격성을 보이지만 스스로가 전위 공격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는 자기보고식 설문 연구로는 탐색해낼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참가자 관찰을 포함한 실험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는 이후 이 변인들에 대한 설문연구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부분을 설문에 포함시켜 통제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 3자를 관찰자로 두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의 특성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을 뿐, 직접적인 공격성과의 비교를 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은 선행연구에서 전위 공격성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미란, 2001; 신종희, 2002; 주지영, 2005), 특성 전위 공격성과 직접적인 공격성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서민재, 박기환, 2013; 이하나, 2009). 다만 전위 공격성은 직접적인 공격성과는 달리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며, 표출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위 공격성이 높은 개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심리 내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서민재, 박기환, 2013).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과 직접적인 공격성에 대해 함께 조사하여 어떤 심리 내적 기제가 각각 전위 공격성 및 직접적인 공격성과 더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여 전위 공격성만이 갖는 특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특히 전위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개인들만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해하여 보다 차별화된 방식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계현 (1993). 분노조절 프로그램. 청소년 범죄연구, 11(11), 49-64.
- 김교현, 전경구 (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김미란 (2001). 고등학생의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우울 및 공격성의 차이.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림, 홍혜영 (2013). 중학생의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135-156.
- 김상균 (2016). 여성수형자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2(4), 27-46.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주, 이정윤 (2011).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

- 게: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2), 965-981.
- 박경화 (1991). 한국인의 자아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숙 (1993). 연령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성, 홍창희 (2008). 고등학생들의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감정표현기법과 인지이완기법의 효과.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1(2), 53-69.
- 서민재, 박기환 (2013).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63-181.
- 서수균, 권석만 (2002a).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서수균, 권석만 (2002b).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연령집단 간 비교. 한국 심리학회지: 학교, 6(2), 213-227.
- 신중희 (2002).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우울, 불안, 공격성의 차이-여중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주 (2007). 청소년의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에,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철호, 이민규 (2007).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 교도소 수형자의 분노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35-46.
- 이하나 (2009). 전위된 공격성 집단의 특성에 관한 탐색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규, 한덕웅, 이장호 (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STAXI-K).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8-32.
- 전경규,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정해숙, 정남운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2), 89-107.
- 조근호, 김지연, 최경순 (2009). 문화성향과 분노통제: 분노 수준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69-90.
- 조은영 (2011).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특성과 전위 공격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지영 (2005). 고등학생의 분노표현양식, 우울 및 공격성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천성문, 이영순, 이현림 (2000). 신경증적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치료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53-82.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최효선 (2003).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시행과정 연구: 비행아동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표현 (2012).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또래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일반집단과 잠재비행집단 비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선주, 박기환 (2014).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전위 공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125-1144.
- 황지선 (2013). 성인 애착이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 과잉활성화, 정서 비활성화, 외로움 및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usubel, D. P. (1955).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guilt in the socializing process. *Psychological*

- review, 62(5), 378-390.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 Berko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5(4), 494-503.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 Claesson, K., & Sohlberg, S. (2002). Internalized Shame and Early Interactions Characterized by Indifference, abandonment and Rejection: Replicated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9(4), 277-284.
- Cook, D. R. (1988).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2), 197-215.
- Denson, T. F., Pedersen, W. C., & Miller, N.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1032-1051.
- Denson, T. F., Pedersen, W. C., Ronquillo, J., & Miller, N. (2008). Trait displaced aggression, physic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 process model. In S. Boag (Ed.), *Personality down under: Perspectives from Australia* (pp. 203-211). Hauppauge, NY, US: Nova Science Publishers.
- Dollard, J., Doob, L. W., Miller, N. E.,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Epstein, R. (1965). Authoritarianism, displaced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of the targ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585-589.
- Forgays, D. G., Forgays, D. K., & Spielberger, C. D. (1997). Factor Structure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3), 497-507.
-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660.
- Hovland, C., & Sears, R. (1940). Minor studies in aggression: VI. Correlation of lynchings with economic indices. *Journal of Psychology*, 9(2), 301-310.
- Kaufman, G. (1974). The meaning of shame: Toward a self-affirming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6), 568-574.
- Kaufmann, H., & Feshbach, S. (1963). Displaced aggression and its modification through exposure to antiaggressive communication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1), 79-83.
- Kim, B. S., Atkinson, D. R., & Yang, P. H. (1999). The Asian Values Scale: Development, factor analysis,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42-352.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Psychoanalytic review*, 58(3), 419-438.
- Lewis, M. (1995).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Free Press.
- Liu, Y., Wang, M., Chang, C. H., Shi, J., Zhou, L., & Shao, R. (2015). Work - family conflict, emotional exhaustion, and displaced aggression toward others: The moderating roles of workplace interpersonal conflict and perceived managerial family suppor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0(3), 793-808.
- Marcus-Newhall, A., Pedersen, W. C., Carlson, M., & Miller, N. (2000). Displaced aggression is alive and well: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 670-689.
- Megargee, E. I. (1973). Recent research on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personality patterns among violent offenders. *Sociological Symposium, 9*, 37-50.
- Miller, N. E. (1948). Theory and experiment relating psychoanalytic displacement to stimulus-response generaliz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3*(2), 155-178.
- Miller, N., Pedersen, W. C., Earleywine, M., & Pollock, V. E. (2003). A theoretical model of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1), 75-97.
- Nathanson, D. L. (Ed.). (1987). *The many faces of shame*. New York: Guilford Press.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582.
- Pedersen, W. C., Gonzales, C., & Miller, N. (2000). The moderating effect of trivial triggering provocation on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5), 913-927.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pielberger, C. D. (1988).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 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 Tangney, J. P., Miller, R. S., Flicker, L., & Barlow, D. H. (1996). Are shame, guilt, and embarrassment distinct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256-1269.
- Tangney, J. P., Niedenthal, P. M., Covert, M. V., & Barlow, D. H. (1998). Are shame and guilt related to distinct self-discrepancies? A test of Higgins's (1987)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56-268.
- Tangney, J. P., Wagner, P. E., Hill-Barlow, D., Marschall, D. E., & Granzow, R. (1996).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97-809.
- Taylor, A. B., MacKinnon, D. P., & Tein, J. Y. (2008). Tests of the three-path mediated effect.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2), 241-269.
- Yontef, G. (2008). 알아차림, 대화 그리고 과정: 게슈탈트 치료에 대한 이론적 고찰 [*Awareness, dialogue & process : essays on gestalt therapy*]. (김정규, 김영주, 심정아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3에 출판).

원고접수일: 2017년 8월 29일

논문심사일: 2017년 9월 21일

게재결정일: 2018년 2월 12일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Displaced Aggression: Dual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Ji Yeon Hwang

Department of Psychiatry,
Dankook University Hospital

Kyu Jin Yon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displaced aggression, investigating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i.e., anger-in, anger-o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displaced aggression. A total of 327 adults (128 males, 198 female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no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e compared the model fits of the research model and the competition model, and found that the competition model was the best model for the present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are relationships between noted anger-in fully mediated as no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anger-out, and anger-in partially mediated as se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and displaced aggression. Also, the incident of anger-ou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in and displaced aggression.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incident of internalized shame influenced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anger-in and anger-out with dual mediation effects. The results are going to be useful for clinicians to understand and assist clients who have problems of managing their displaced aggression with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Furthermore, the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tasks were discussed.

Keywords: internalized sham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nger-in, anger-out, displaced aggression